

캐나다 페인트 시장 갈수록 위축

성숙시장으로 미국의존도 심화 ... 멕시코도 수요증가율 둔화

캐나다는 SARS(급성중증 호흡기증후군) 및 BSE(광우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해 선진 7개국 중에서 가장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미국수출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도료는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수요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과거 10년 동안 캐나다에 진출한 많은 미국기업의 특수화·전업화를 통한 합리화로 공장을 폐쇄해 도료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캐나다 도료 수출의 97%가 미국으로, 도료 수입의 96%가 미국산으로, 캐나다는 미국과 1993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도료 및 도료 원자재의 무역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캐나다의 공업용 도료 및 자동차용 도료 수요는 2003년 약 8% 감소했으며 건축용 도료는 1% 증가했다.

많은 유럽과 미국 도료기업들이 캐나다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이 남부의 온타리오를 제조거점으로 삼고 있다.

ICI Canada는 내장, 외장, Stain, Varnish, 중방식, 가정용 도료 등을 폭넓게 생산해 CIL, Gidden, Devoe, ICI Dulux, St. Clair 등의 플랜트에 판매하고 있다.

Sico는 캐나다 최대규모의 도료기업으로 종업원 약 1000명에 달하며 건축용 도료를 1965년 이후 생산하고 있고 2003년 5월에는 캐나다의 가정용 도료기업 Para를 인수했다.

DuPont Canada는 1970년 이후 자동차보수용 도료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으며 DuPont, Standox, Spies Hecker, Nason 플랜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PPG Canada는 자동차용, 공업용, 건축용 도료, BASF는 자동차 OEM과 자동차 보수용을 전문으로 일부 공업용 도료도 생산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 도료시장은 2001년 축소됐고 앞으로 5년간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하는 분야로서는 분체도료, 코일코팅, 자동차용 도료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도료기업인 Comex Group은 Mexican Commercial Paint Company의 사명으로 창업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 1위 도료 생산기업이다.

Akzo Nobel은 자동차보수용 도료로 Ameron과 중방식 도료 분야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했고, DuPont Mexico는 멕시코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생산기업으로 건축용 도료와 공업용 도료도 생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27>